이론적 개화기로 대체로 1870년대의 개항으로부터 1910년의 중복국제로 잡는다면 통監府時期는 1905년말부터 위의 中覆国恥(아가서 朝鮮總督府 설치)까지로 잡을 수 있다. 이 시기는 혼인정을 창제 이후로 語文整理 운동이 역사상에서 한 걸작으로 보였던 때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국어학의 역사 시술에서 이 시기의 어문정리 운동에 대하여 비상한 관심을 보여 왔는데, 이는 너무나 당연한 작업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어문정리 운동에 대한 시술은 그 문화사적 배경 이외에 주로 문자체계의 새로운 확립과 표기법에 초점을 맞추곤 하였다. 그것도 개화기 학자들이 論説이나 研究案 자체에 대한 이해에 그치고 당시 학자들의 실제 표기와 연결시키지 못한 일은 별로 없었다. 편자는 「近代國語 帝期의 語彙整理와 그 辭典의 展開」, 「開化期의 語彙整理와 辭典編纂」 등의 글을 통해서 어휘 정리를 사전 편찬과 관련시켜 살펴본 바 있다. 어문정리 가운데서도 어휘정리에 초점을 두려는 이 글에서는 통감부시기에 관심을 보였던 어휘정리를 池錫永의『言文』를 통해 이해하여 보려 한다. 1907년에 간행된『言文』을 기본자료로 삼은 이유는 지금까지 잘 알려진 바와 같이『新訂國文』을 제기하여 이를 바탕으로 國文研究所의 설립과 활동이 본격화되었고 새로운 어문정리 운동이 확장된 시기가 바로 이 통감부 시기인데, 바로 이 시기에『言文』이 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어휘정리를 다양하게 보인 대표적인 경우는 1909년과 1910년 사이에 간행된『大韓民報』인데, 여기에는 ① 새로운


이상의 몇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이 글에서는 우선 池錫永의 國文之法 주장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과 『言文』의 표기 사질을 대조해 보고서는 끝으로 한자어를 검토하고 『言文』의「朝鮮語國語用字比較例」일본어 한자어가 국어에 침투된 과정을 국어사전들과 대비하여 확인해 보려 한다. 이는 곧
語彙史에서『言文』의 한자어들이 차지하는 시대적 의의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고를 염두에 참고사전으로 한말사전(1881), 국한화화(國文字集)(1895), 한영사전(1897)과 조선사전(1920), 조선어사전(1938), 큰사전(1947～1956) 등이 이용되고, 池錫永의字典들과 여러 논설・연구인 등이 추가된다.

2

池錫永(1855～1935)이國文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인 때는 통감부 시기이다. 국문에 관심 그의 論著가 대부분 이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국문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간접적인 동기는 1876년에開港한 釜山에 가서 일본인 거류민을 위한 서양식 일본병원을 찾았던 때에 비롯된 듯하다고 한다.

池錫永은……1879년 10월 부산에 도착하였다. 池錫永은 일본인 거류지의 漢字病院을 찾아가서 자기의 뜻을 일본어로 모르므로筆談으로 편력하였다. 이 범인의 원장 枝戸謙과 의사(해군 군의관) 戸塚従Enumerable是池錫永의 열의에 感服하여池錫永에게 种痘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 대신 池錫永은 당시 일본인 거류민들이 편안 준비를 하고 있던 「西洋方書」등 일종의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明朝辭典의 한국어的誤字를 바로잡아 주기로 합의하였다.

池錫永의 2개월간의 釜山生活은 평생에 걸쳐 그의 學問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는 여기서 西洋種痘法을 배우고……또한 이 때 일종의 明朝辭典의 한국어 부분의 교정을 보다가 国文法에 갖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憲鎬(1885)에서 이로써 본 것도 어느 정도로 남득이 잘 만한 것이기에는, 1869년에『東文字母分解』을 지은 漢學者 姜瑋(1820～1884)는 중국梁啓超 등의 영향을 받은 民族自覺意識이 강했던 開化派 인물인데 池錫永이 실은 이 姜瑋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朱昇澤(1991)에 다음과 같은 인급이 보인다.

姜瑋는 50세를 헌신한 시기에 역관인 遼遼桓의 집에 기거하며 청계천에 둥인 여섯번째 다리는 慶鶴 일대에 살던 역관들의 이웃이 지냈는데 이때 쓴 시편은 오

요컨대 『훈민정음』(1446)의 전통을 이어받은 柳มง의『諤文志』(1824)와 비슷한 구성으로 姜挰가『東文字母分解』(1869)을 지어 한자어(“東音”)조차 諤文으로 표기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하였다면 이 姜挰의 영향을 또다시 池錫永이 받아들여 가능성을 예측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영향하에서 그가 釜山에서 일본인을 위한『言語大方』 등의 국문 교정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닐 가 한다. 姜挰나 池錫永은 당시까지는 일본어를 몰랐기에 일본의 國漢文交作法을 알 수는 없었음이고, 국문전용까지 실천하지 않았을 것이 다.(1)

1885년에 간행한 池錫永의 대표 저서의 하나인『牛痘新說』은 순한문으로 저술되었는데 이는『牛頭講話』(忠清道) (1881)도 순한문으로 되어 있으나 1891년에 저술한『實學新說』은 순국문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5년 뒤인 1896년에는 순국문으로『國文論』을 썼고 다시 1901년에는 字母인『訓蒙字略』을 징기도 하였다. 드디어 1905년에 새로운 문자체계를 확립하기 위한『新訂國文』을 창안하여 議政疏를 올림으로써 이 제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國文研究所의 창립을 봉고 되었고 國文議政案이 마련되게 하였다.

(1) 본래 謝學을 했던 池錫永은 周時經과 내향이 있었고 ‘國文(法)’에 관한 의전 교환도 있었으며 독립협회 회원으로도 일정적이었는데, 이러한 그의 정신은 國文自覺과 함께 같이 되어져 손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09년에 그간에 순번해 온『言文』과『字典釋要』를 발행함으로써 동과부시기는池錫永에게 국문(體) 연구의 황금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 뒤로는
『愛國歌』란 시를 짓기도 하고 1921년에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제정한「普通學校用譯文敘字法」의 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보면池錫永은漢文의 세계와國文의 현실 사이를 오간
생님이, 그에게 영향을 미친 개화파 한학자姜鎬 다음 세대의 시대적 상황
과 동하는 점이 있다. 한문 사용과 국문 사용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는「國
문론」에 그의 생각이 잘 반영되어 있다.

…… 국문이 약사의 형 헬기를 잔 일 헬지 못하면 나라 인민도 그나라 국문을
귀중한 헬줄을 모르니 임치 나라에 관계가 겪나 헬리오……우리 나라 국문을 잃
어 보면 보다 평성뿐이요 헬계 쓰는거손 업스니 늘게 쓰는거시 업키로 어음은 귀
특히 헬명치 못하야 동 동량동조는 본리 나준조즉 동 헬레니와 헬 움직일동조
는 늘고 조연마는 동 외에는 다시 표출거지 잇고 헬 터들보동조는 움직일동조
보다도 더 늘مصطفى만 동 외에는 또 다시 도리가 업스니 쓰 빌릴기 게 빌릴을 이
두 글조로 발전진던 첫조에 표가 업스니 국문으로 만보면 채 빌릴들조 못도 빌
빌릴기간oneksi과 채호하여 채 동거 쓰야 두조도 국문으로 만 보면 과연 분간 헬기
어려운지라 이에 헬으로 여간 한문 헬는 사람 다니 국문을 게집사람의 글이라 헬
아 처지도의 헬기로 국문이 점점 어두어 국가에서 국문 대신 분다가 지의 넓계 되
아스니 가석 헬도다……내십형 헬야 어린 오히려 몬저 국문을 모르쳐서 사상 거
성 표면만 헬야 넓으되 젓 헬야 쓰는 음을 조금만치 누우고 정 둔적은
자는 음을 조금 더 누를라 약속 하고 채에 표를 헬야 주었며 모르겠을 업시 풋
슬 다 아니어박은 진기 국문에 빌이 요긴한 거시로다……

요건에 국문진용을 치통로 한 논의로 국문진용을 하던 보면 어음은 분명
히 기록할 수 없는 점이 있기에 되는데, 그 중요한 한가지로 음의 고저를 지
적하였다. 그 에로「東, 動, 棟」이 높은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동」이라 국
문으로 적으면 구별할 도리가 없으며「버릴기(棄)」버릴열(列)과「들거
(舉)」들야(野)도 국문으로만 보면 분간하기 어려기 때문에 젓을 적어 표
를 하는 법이 국문에 제일 요긴한 것이라 하고 있다.⑵ 한자등 고유어든

⑵ 이러한 방식은『訓纂字略』에서는 적용하지 않았으나,『字典釋要』에서도 강조
하면서 한자에는 이미 적혀하였다. 다만 국문에는 표시하지 않았다.
간에 국문전용시에 이 국문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하나의 과정을 전체로 하고 있음에 의해해야 한다. 그것은 국문과 한자(또는 한문)의 학습 관계이다.

우리 나라 여러 학회를 총괄, 천조문 그르침은 전국에 통용이라 가령 동학 선생이 한문은 모르고 국문만 아는 사람이 잇셔서 오호를 그르쳐라 흘면 세 비린열

설 비럴기 이 두조 손 صلى 것간 흔아 그르치리오 내가 홍성 여의 담담히 모

음이 잇셔서국문에 유의하다. 하는 사람은 대 흘면 미상일 노노히 강론하더니

……

즉,池錫永은 국문전용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국문표기에 성조 표시가 효과적이면서 한자·한문도 알아야 할 것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일찍이崔世珍은 국문과 한문의修學次序에 대하여『訓蒙字會』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무릇 서술이나 지방사람들 가운데, 언문을 모르는 이가 많아서, 이제 언문자로서 함께 겪어 그들로 하여금 먼저 언문을 배우 다음 호문자회를 공부하게 하면, 혹시 밤계 캐우치는 데에 이로움이 있을 것이니, 비록 스승의 가르침이 없더라도 한문에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3)

이는譯文字母를『訓蒙字會』의 첫머리에 달붙인 동기에 대한 언급이기
는 하나 국문을 먼저 습득하는 것이 한자를 배워 한문에 통할 수 있는 길
임을 강조한 것인데,池錫永도『字典釋要』가訓蒙을 위한 것이라면서 비록

婦孺樵牧이 여질을 소비해서 국문을 채득하게 되면 선생의 가르침을 기다

리지 않고서도 능히 캐우칠 수 있다(4)고 하여 거의 같은 태도를 지녔던 것

이다. 물론崔世珍의 시대와池錫永의 시대는 상황은 물론이요 정신도 달

랐다고 해야 할 것이다. 池錫永이『旨文』이나『字典釋要』를 지은 시기는

이미高宗의 어문정책인總以國文為本漢文附譯或混用國漢文(1894)이 강

조되어 진행되고 있었던 때이므로, 1928년 무렵에는閣議의 결정에 따라

(3) 凡在邊鄙下邑之人必多不解譯文故今乃幷著譯文字母使之先學譯文次學字會

則庶可有曉讀之益矣其不通文字者亦皆學譯而知字則雖無師授亦將得為通文

之人矣

(4) 此態度為訓蒙雖婦孺樵牧費了幾日之時學得國文則不待師教能曉
各官廳의 공문서는 一切히 국어로 말할 수 있고 국어이나て르러나 외국어와의 혼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을 시행하도록 하였던 데이다. 즉 국어의 국어용이 정착된 때인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안철호가 "국어의 문헌"(1906)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어의 국어용이 편리한 방법이라 하지만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이 쓰였던 것이 통감부 시기의 현실이었다.

一. 天地之間萬物之中唯人最貴 純漢文唯雅者讀
二. 廢弛之民害孔子之道流之者如長老者 純國文俗者讀
三. 天地之間萬物之中唯人最貴者今之國漢文交用法俗者儻不能讀
四. 天地之間萬物之中唯人最貴者今之國漢文交用法俗者儻不能讀

이 '純漢文, 純國文, 國漢文交用法, 漢字側附書誦文'의 4가지 표기방식에 따라 안철호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일을 주장하였다.

一. 延請博學多聞之人erty 韓語之基礎書 韓國國文書典一部書事
二. 小學教科書漢字側附書誦文書事
三. 韓國國文書典一冊asy 한국어添加書誦文一科於小學校書事

여기서 ① 국어사전 ② 국문 달아쓰기 ③ 국어규범서 편찬과 국어과목 (초등학교) 설치를 강조하였는데, 네가지 표기중에서 (한자) 삼성 정비한 응용한 것을 주장한 셈이다. 각 삼성 정비한 표기방식은 국어의 국어용을 전제로 하고서 한자, 한자어 및 외래어로 국문으로 달아 줄으므로써 초기에는 국문만으로도 읽고 알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국어의 국어용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문과 국문 그리고 국한문을 선택적으로 모두 쓰는 시대라 면 이들을 모두 알아야 할 터인데, 통감부 시대가 바로 그러했던 것이다.

특히 국어의 국어용이 강조하였던 이 시기에는

天地/천지 間/사이 萬物/만물 中/중가운데 睹/오직 人/인/소년 興/가장 貴/귀
와 같이 국문만을 읽을 수도 있고 漢韓對應까지 알아야만 俗者와 雅者가 모두 雅俗共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방식은 좀해 보면 漢文 對
國文의 문장 차원이 아니라 단어 차원으로 결국 한자로 표기된 한자어에
대하여 국문으로 표기는 고유어 또는 외래어(한자어)에 대한 지식이 요
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뒤에 다시 언급할『言文』을 지은 동기
가 되는 것이다.

만일 단어 차원에서 국문표기를 달아 붙이면 결국 문장 차원으로 확대
되는 셈인데, 이에 따라 국문의 本 즉 『國文(之)法』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러기 위해서는 문자체제가 확립되고 그 문자들에 의한 맞춤법이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이 작업은 이미 『훈민정음』에서 비롯되어 崔世珍의『訓蒙字
會』의 『諡文字母』, 『真言集』의 『諡本』, 柳僧의『諡文志』, 姜瑊의『東文字
母分解』 등으로 이어진 하나의 전통이었던 것이다. 이 전통을 이어받아
『新訂國文, 國文一定法(一定國文之法), 國文同式法, 國文(之)法, 綴字法』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특히 동강부 시기를 거치던 것이다.

동강부 시기에 池錫永, 李能和 등의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國文研
究所 같은 기관에 의해 이루어졌던 國文(之)法 모두가 정부에 제출된 의
견들이었다.

池錫永의『新訂國文』은 議政府 官報 제3200호(1905. 7. 25.)에 실렸는
바,

新訂國文五音象形辯
新訂國文初中終三聲辯(初聲終聲通用八字, 初聲獨用六字, 中聲獨用十一字)
新訂國文合字解
新訂國文高低辯(字音高低標, 做語音聲標)
新訂國文疊音刪正辯
新訂國文重聲釐正辯

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文字 合字 綴字를 중심으로 한 一定案의 성격을 띠
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시대의 전통을 잊지 못한 자신의 교정을 기친
것이었다. 이 종에서 高低辯의 내용을 이미 그의『國 문론』(1896)에서 교
정하여 제시한 바 있는데, 池錫永이 놀 강조했던 것이기도 하다.
李能和가 학부에 제출한 「國文一定意見」은 순한문으로 『皇城新聞』 제2615호(1906. 6. 1-2)에 게재되었고 또 『大韓自強會月報』 제6호(1906. 7. 31)에 극한문혼용으로 게재되었는데, 그 내용은 韓日兩國이 借用漢文하
고 또 각각 國文(諺文)과 假名이 있음을 고려하여 漢文으로 交作하면 편
리무비라고 생각하고 教育의 기초는 小學에 있으니 이의 國文一定之法이
小學之性質에 적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姜琦・池錫永 등의 경우에는
달리 親和的인 性로 순국문을 전례로 한 한글 맞춤법통일안의 경우와도
차이가 있다.

國文研究所(1907-9)는 “國文의原利와沿革과現行行用과將來發展等의方
法을研究 choć”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池錫永의
『新訂國文』과 學部에 제출됨으로써 이를 검토함을 실제의 작업목표로 삼
앗던 것이다. 이 검토의 최종 검토안인 「國文研究議政書」의 과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國文의源流과字體及發音의沿革
- 初聲中○○△○□四聲 평八字的復用當否
- 初聲의 之disc from 之四聲六字兒書的書法一定
- 中聲中丄丄四聲筆跡의當否
- 終聲의ノー二声用法及ノー四聲六字도終聲에通用當否
- 字母의音階清濁의區別如何
- 四聲議的用否及國語音的高低法
- 字母의音讀一定
- 符順行順의一定
- 綴字法

위의 열 과제는 결국 조・중・종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주력 논의할
주제들이다. 그리고 문자 이름과 字順・行順, 끝으로 당시에 周時經 등에
의해 제기된 풀어쓰기에 대한 綴字法의 과제들이나. 말씀하면 조선시대 이
래로 전통으로 내려온 문자체계와 철자법 등에다가 「新訂國文」에서 제기
된 것들을 종합하여 검토한 것이다. 검토 결과는 대부분 조선시대의 전통
에 따르는 것이었다.
그러면 둘러싸인 국어를 담고 있는『국어연구』에서 제기한 과제들의 생각을 그의 대표작인 하나인 『중국어·漢對照의. 《言文》에서 어떻게 반영시켰는가. 그리고 한자어들을 어떻게 정리하였는가.

3

『言文』은 서문 2면, 범례 2면, 상편 171면, 하편 36면, 모두 211면의 책으로, 상편은 "한조(漢字)로 국문(國文)을 다조(對照)하야 국어된 소이연(所以然)을 발명(發明)하고"와 같이 일종의 한자어 어휘집으로 국어對照辭典의 성격을 태고 있으며, 하편은 "한조의(漢字字意)를 국문(國文)으로 주석(注釋)하였으니 국문(國文)만 통(通)하면 무시(無時)로 험용(行用)하는 국어(國語)의 본面目(本面目)을 가히 두득(透得)할지라"와 같이 일종의 자서의 성격을 태고 있다. 이러한 국문과 한문(한자) 양쪽에 대한 지식을 요청한 사정에 대하여는 이 『言文』의 서문에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소이(所以)로 국속(國俗)이 한문(漢文)을 대단습상(大段崇尚)하야 인지(人材)를 양성(養成)하난 것이 비조박아(非此莫可)하야 하나니 근(近年) 이래(以來)로 문귀(風氣)가 대변(大變)하여 한문(漢文)만 전주(專主)하다가는 무정(無情)한 세월(歲月)을 허송(虛送)하고 유한(有限)한 실력(心力)을 도비(徒費)하야 가소성공(假使成功)이라도 일개(一個)로 학구(老學究)에 불과(不過)하야 어시로(於是乎) 한 문(漢文)에 전력(專力)하든 소상(思想)을 국문(國文)과 상반(相半)하야 국한문교적법(國漢文交作法)이 시(施行)되야 각종학문(各種學文)을 순전(純全)이 국한(國漢)으로 번역(翻譯)하야 한(漢字)을 약간(略幹)만 통하게 능(能)히 전문문의(全篇文義)를 흠득(解得)하니 실(實)도 교육상(教育上) 제(第一)제도(便易)한 방법(方法)이로다.

즉 이 『言文』은 당시에 이미 시행되고 있던 국한문교적법(國한文交作法)을 전제로 그에 맞추어 漢字語와 漢字를 교육시키기 위하여 저술된 것으로 "가로 街路…, 가와만사성 家和萬事成…." 등과 같이 한자어 또는 한문구절을 국문과 한자로 대조하여 편집한 것이며, 이에 필요한 한
자료 속에 따라『千字文』,『類合』,『訓蒙字會』 등처럼 ‘가·街거리·歌노래·嘉아름다음 ……’ 처럼 한자와 그 훈편을 달아 놓아 편집한 것이다. 19,000여개의 어휘중에는 일반어휘가 대부분이지만 고유명사 등도 상당수 들어 있다.

(人名)
강장한 姜邯贊, 김유신 金庾信, 김부식 金富軾, 김덕령 金德齡, 김응하 金應河 등

(郡邑名)
가령 加興, 간성 千城, 갑산 甲山, 강릉 江陵, 강화 江華, 강계 江界, 강진 康津, 개천 亜川, 기성 開城, 경성 京城, 경흥 慶興, 고성 圓城, 공주 公主, 고흥 故城, 금산 錦山, 김천 金泉, 김포 金浦, 김현 金海, 김화 金化, 동북 東北, 同福 同福, 면천 淮川, 천주 全州, 홍주 洪州, 황간 黃簡 등

(道名)
강원도 江原道, 경기도 京畿道, 경상도 慶尚道, 경남 慶南, 경북 慶北, 전라도 全羅道, 충청도 忠清道, 충남 忠南, 충북 忠北, 평양도 平壤道, 함경도 建鏡道, 황해도 黃海道 등

(國名)
가락국 駑洛國, 고구려 高句麗, 탁국 德國, 법국 法國, 불란서 佛蘭西, 미국 美國, 에굽국 埃及國, 영吉利 英吉利, 아리아스 俄羅新, 파라국 波蘭國, 중국 中國 등

(洲名)
구라파 歌羅巴, 아미라가 亞美利加, 아세아 亞細亞 등

(宮·樓·陵名)
경희궁 慶熙宮, 경복궁 慶福宮, 경정궁 慶慶宮, 장덕궁 長德宮, 장호각 建會樓, 전원궁 建元宮 등

(山名)
가야산 伽倻山, 백두산 白頭山, 태백산 太白山, 한라산 漢拏山 등
고유명사들은 보통명사들 당시에 널리 쓰이던 한자어로 모두 것이다.

여회들이 국어학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예컨대 일적부터 ‘법국’이 쓰
여 왔는데, 여기에 새로 일본어 한자어인 ‘불란서 佛蘭西가 차용되어 쓰이
게 되어 둘 다 『言文』에 올린 것이다. 이 책에는 당시에 새로이 쓰이게 된
단어들이 더러 실려 있다. ‘괴독교 基督教, 턴추교 天主教’, ‘대통령 大統
領, 종리대신 總理大臣, 통감 續監’, ‘대학교 大學校, 소학교 小學校’, ‘황인
종 黃人種’ 등등이 이런 예들일 것이다. 이 점에서 채錫永은 개화파답다.

그러면 ‘가로 街路 …… 관성대군각세진경 闕聖帝君覺世真經’ 등과 같이
모두 2음절 이상의 한자어만이 상편에 실려 있고 단음절어는 단 하나도
실리지 않았다. 이는 하편이 字書처럼 짜여 있어서 단음절의 한자어를 모
두 하편에 편입시키고 상편에서는 생략한 듯한데 경계성을 고려한 때문일
것이다. 예컨대 ‘江, 山, 詩, 厄, 王, 點, 柱, 兄 ……’ 등이나 ‘一, 二, 三, 四, 五, ……, 九, 拾’ 등과 같은 단음절어들이 그러하다. 그 결과 音引字書
의 형식인 하편에 실린 한자어들이 어디까지 자립적인 난어로서의 한자어로
당시의 국어에서 쓰일 수 있었는지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버
렸다.

수록어휘들의 배열 순서는 ‘가, 각, 간, 큰, 갈, 감, 갑, 강, 개, 기, 직,
광', '교', '구', 국, 군, 곱, 광', '구', '규', '극, 근, 금, 길', '과, 각, 관, 광', '궤', '권, 급', '궤' 등과 같다. 즉 모음의 순서는 'ㅏ (.,.) 헛 (.,.)', ㅓ ㅓ ㅓ ㅓ, ㅗ ㅗ ㅗ ㅗ, ㅜ ㅜ ㅜ ㅜ, ㅏ ㅏ ㅏ ㅏ, ㅣ ㅣ ㅣ ㅣ이다. 여기서 끝에 '나, 나'를 위치시킨 것은 조선시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이 순서는 하편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池錫永은 '新訂國文', '大韓國文說'에서는 'ㅏ ㅏ ㅏ ㅏ ㅗ ㅗ ㅗ ㅗ ㅜ ㅜ ㅜ ㅜ'의 중목十一字의 음절 순서를 주장하였으나 그의 '國文研究案'에서는 'ㅏ ㅏ ㅏ ㅏ ㅗ ㅗ ㅗ ㅗ ㅜ ㅜ ㅜ ㅜ'의 순서에 차이를 보였다.⑤ 음절취서식이라면 행順과인 다라, '國文研究案'에서 행순을 '가 나 다라 …… 가다 자하'로만 정하였다. '와의 위치가 명시되지 않았다. 『言文』의 행순이 'ㅏ ㅏ ㅏ ㅏ ㅗ ㅗ ㅗ ㅗ ㅜ ㅜ ㅜ ㅜ'와 같이 된 것은 한자음에서만 '와, 나'를 쓰고 고유어음에는 일체 쓰지 않은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國文研究案'은 '以國文為本에 따라 순국문만을 전체로 한 것이었기에 행순에 '와, 나'는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國文研究案' 자체는 국한문을 정리 했는데,池錫永 자신은 '와'를 일체 쓰지 않았다. 그리고 『字典釋義』(1909)에서도 고유어는 물론이고 한자어에서도 '와'는 '現行俗語'로는 더 이상 쓰지 않았다. 범례에서 토를 달 때만 '〜향아'처럼 쓰는 가끔이 묵 있는데, 이는 譯文釋義参照 小學譯解例项 제문이었다. 그리고 原音 표시에서 필요시에 '宅・門'과也 집 탱 ……처럼 하여 原音과 俗音을 구별하였던 것이다.

자음의 배열순서에서 특이한 것이 이론바 된시웃 '시 아 샤 사'의 순서이다. 당시의 한자음에서 합음병서가 쓰인 예로는 '씩(씩) 급'을 탐히 없다.

적고 مواضيع 식반 scrimmage 질인 놀이 식설 설

이들은 '기' 세월세와 '긴요緊要' 사이에 배열되어 있다. 즉 '기 ~ 긴' 사

⑥池錫永은 '을 살'으로 보고서 새로운 문자 '은'을 창안하였으나, 『兒學編』 (1908)을 제외하면 실제로 이 세운자를 직접 쓴 일은 없다. 周時經도池錫永과 교류하면서 같은 해석을 피하였으나 문자를 창안하는 것이었다.
이에 놓여 있다. 그런데 초성 ‘ㅆ’은

생성생성 성용생용 생문생문 성족성족 성명성명

의 예들이 보이는는데, 이들은 각각 ‘상~식’, ‘십~쇄’ 사이에 놓여 있다. 이

렇게 보면 ‘서’와 ‘ㅆ’ 사이에는 순서상 분명한 차이가 있다. 즉 ‘서’의 경

우에 맞춘다면 ‘상’과 ‘서’ 다음에 각각 위치시켜야 하는데, ‘상’과 ‘십’ 다

음에 각각 배열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서’를 뒷시옷으로 해석한 셈이고

‘ㅆ’은 각자별서로 인식한 셈이다. 혼히 본래는 ‘서’가 각자별서였다가 국어

표기법에서 각자별서가 없어지고 합용병서로 바뀐 사실로부터 뒷시옷으로

보고 있다(李基文 1972:49). 池錫永은 합용병서인 ‘서’를 뒷시옷 계통으로

보지 않고 ‘＜’과 같은 반복부호로 보아 각자별서를 대신한다고 생각하였

다. ‘서, 서, 서, 서’를 반복으로 보았고 ‘ㅆ’은 15세기처럼 각자별서로 보

아 반복의 ‘서’과 각자별서 ‘ㅆ’의 앞 ‘서’에, 이 둘을 구별하기 위해 배열순

서를 달리하지 않았나 싶다.

‘서’ 이외에는 이른바 뒷시옷이 한자음에서 쓰이지 않았으나 하편에서

한자의 훈정에는 ‘서’는 물론이고 ‘ㅅ, 셔, 서’ 등이 상당히 많이 쓰였다.

〈서〉: 곧 땅 줄 보리 되고리 향 토끼 한때 저까락 짐금 헬 물을 벌할

할……

〈ㅅ〉: 땅 줄 빼 섭 짜지 쓰지 팔겠할 저리질 짧았할 활칠……

〈셔〉: 셔썰마를 셔썰 셔 쌓질 벌배할 나무증배할 폐여날 물뿌リアル……

〈ㅅ〉: 반쪽서욱 셔-url 셔 url 셔 url 셔 url 셔 url 셔 url 셔 url 셔 url 셔 url 셔 url

〈ㅆ〉: 짜 줄게 셔 셔 짜 짜 짜 글씨 셔 셔 글씨 셔 글씨 셔 글씨 셔 글씨 셔 글씨

구울

이른바 ‘사이시옷’의 표기는 적어도 『言文』에서는 모두 ‘ㅅ’만을 가지는

대, 두 명시 사이에서 선행명사의 모음을 종성 다음에 모두 사용되었으나,

‘(ㄷ)ㅅ’ 종성 다음에는 쓰이지 않았다. ‘저까락’은 특히 모음 다음에서 사

이시옷이 합용병서가 가능한 ‘서’으로 형성된 것이고 ‘곤 闊문서방’과 같이

‘ㅅ’이 ‘사이시옷’이 아니라 후속명사의 초성 ‘ㅅ’으로 표기된 예가 보이기

는 한다. ‘창 艾매녘’은 현대어에서는 ‘사이시옷’의 표기원칙에 따라 ‘ScrollView’
으로 표기되고 있다. 그밖의 대부분은 ‘사이시옷’의 명칭대로 두 명사 사이에 ‘서’이 쓰였다. 이들 자료는 말할 것도 없이 한자에 대한 훈언에서 보인다.

간 줄مؤلف기 계 훈즈림시길 고 훈버시길
교 뾰산시길 균 투동근고시길 광 뾰석시돌
뇌 (뇌노)머티스골 동 놀길스마루 땅 휴들스보
류 티시스방 특 투말비스대 풀 토시고
반 근 지스자리 봉 뮤산시봉오리 속 토시스방
애 홀름시갓 장 짧손스바다 추 투Submitting
즉 서 strokes 건 과 흰단데스자리 판 되외스속
합 헌안송문 형 협저율스대 혼 우송하군

이상의 ‘사이시옷’이 쓰인 환경을 보면 특별한 제약은 눈에 띄지 않는다. 즉 모음과 종성 ‘기, 나, 르, 서, 바’ 다음에 ‘사이시옷’이 나타나고 ‘서’ 다음에는 보이지 않으며 후속자음이 모두 평음일 때에 사이시옷이 보인다. 종성은 고유어의 경우 ‘기, 나, 르, 서, 바, 사, 오’의 7개지만 한자음의 경우에는 ‘서’이 없이 ‘기, 나, 르, 서, 바, 오’의 6개임은 물론이다. 『新訂國文』에서는 조선시대의 전통을 따라 初終聲通用八字를 제시하였으나 ‘서, 난’의 구별없이 ‘棰발을, 투발’처럼 표기하여 실제로는 ‘서’종성을 쓰지 않았다. ⑤

『言文』의 가장 특징적인 표기는 高低長短音의 표시에 있다. 池錫永은 그 일러두기에서

대*한언어(大韓言語)가 거란(居蓮) 한*문(漢文)의 조음(字音)으로 형용(行用)이나 한문조음(漢文言音)의 고서(高書)나 국어*된(國語)의 이*원(語源)을 인(因)하여 변*변(變)한지라 시*이(是也)로 삼*편(上篇)에난 놀혼 조(字)라도 어*음(語音)에 낮게 형용*行用하하면 동근 덧(點)으로 표*標하였나니 그 규례(規例)를 보*標(標)한편에 큰 대(大)소조(字)와 격울 소조(字)가 다*등장마는 대*인(大人)이라 소*인(小人)하던 데난 어*음(語音)을 높게 쓰기에 동*근 덧(點)으로 표*標하고 대본(大本)이라 소본(小本)이라 하던 데난 어*음(語

(6)『國文研究案』에서 池錫永은 音理와는 직접 상관없이 ‘서, 난’을 구별하지 않고 ‘서’으로 쓰음을 받아들이고 있다.
음)을 냉게 쓰기에 표(標)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방초(餘皆此)함

과 같이 음의 고저 표시를 두 단계로 할 것을 언급하였고, 또

하편(下篇)에는 한(한)의 원음(原音)대로 높은 주(字)는 동근 흑점(黑
점)으로 표(標)하고 어음(語音)이 길게 되던 대근 동근 권점(圈點)으로 표(標)
하였으니 그 규례(規例)는 밀"원"(遠) 들"야"(野)의 르(類) 나 여기방초
(餘皆此)함

이라 하여 음의 고저, 장단 표시를 동근 흑점과 동근 권점으로 각각 구별
하려 하였다. 예컨대 "별" 원(遠)은 "별"이 고조로 "원"이 장음이라는 것
이서. 결국 한자음을 대상으로 하는 상편에서는 고조표시인 동근 권점만을
사용하고 고유어까지 포함된 하편에서는 고조표시의 동근 흑점을 그리고
장음표시인 동근 권점을 사용함으로써, 동근 권점의 표시기능이 달라지고
있고, 상편에서는 고저만을 표시하고 하편에서는 고저와 장단을 모두 표시
하는 방식의 차이도 보인다. "고"와 "저", "장"과 "단" 두 단계를 설정하고서
고저장단을 그렇게도 잘 강조해온池錫永이 왜 이른 통일성을 갖추지 않았는
지가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상에서 보아『言文』은 『開港』이래 배제되어 비속은게로 구체화된 고
중의 언어정책에 以國文為本漢文附譯混用國漢文의 목표 속에서池錫永이
이 정책에 따르 국文之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문 대 한문의 대조로 한자
어를 자모순으로 배열한 詞典 형식의 상편과 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字
음별 분류의 訓釋을 각 한자에 달아놓은 字음 형식의 하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상편에는 단음을 한자어는 제외하고 2음절 이상
의 19,000여 단어와 구절을 모아 국한문으로 대조시키기만 한 결과, 사전
에서 흔히 요구되는 뜻풀이에서 "난 燧 더울 暖上同"과 같은 경우를 제외
하면 多義性이나 類義性 등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 대신
국문 표기에는 철자를 피하려 하였는데, 대체로 그가 『新訂國文』을 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國文研究所에서 議定하면서 높 자신이 주장해 온 대도를 내
체로 지키려 하였는데, 다만 고저장단 표시 이외에는 독창적인 주장을 반
영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당시에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표기하고 있는 방식
을 대부분 그대로 취하게 되었다.『言文』이란 책이름이 한자 지식을 전제로 하기는 하였으나,『言文』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한다.

池錫永은『周時経』과 같이 `·'를 단음이나 `·'의 합음으로 인식하고서 `·'을 창단하여 이의 사용을 제거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가 쓰이지 않는다는가 통일되지 않고, 빈어하지 않게 되어 "文明의面目에,大段이, 妨害가, 有하리니"라는 이유로 `마나' 등 14자를 폐지하고, `가나' 등 14자와 첨음되는 폐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國文研究案』에서 주장하게 되었다.『國文研究議定案』에서 `·'와 `나'를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결정과는 다른 태도였던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池錫永은『字典釋要』(1909)에서 시는 일체 `·'을 쓰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그가 처음부터 가졌던 것은 아니다. 1901년에 편찬하였다는『訓蒙字略』에서는 `초인군주, 주장형주', `높은렇구, 빈사형사'처럼 `고ゝ'와 `하ゝ'의 변화를 받아 들여 `·'의 사용을 많이 기피하거나, `且지사' 어조소사'와 `도어조사여'처럼 `소～사'의 혼기를 보이면서도 다음과 같이 `·', `나'를 쓰고 있다.

1) 事말사 쌍길사  
    侍問사, 侍玉사
2) 下말에하, 연일하
    亟時서
    侖_COD
    廠宅
3) 侍부품품, 솔필
4) 侏卽이주, 佐典부부
    久玉御구
    普가운티양, 다의영

1)2)에서처럼 `·'와 `나'를 한자음에서 쓰고 있고 3)4)에서처럼 고유어에서도 이 들을 모두 쓰고 있다. 이로부터池錫永이 이 `·'와 `나'를 쓰지 않게 된 것은 단계적이었고,『字典釋要』에 이르러서야 완전히 폐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 `나'의 표기에 한정시킨다면『言文』은 과도기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言文』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상권은 한자어를 가나다순으로 배열하되 한자어로 한곳에 묶어서 제시하였는데 이 문장 안에서는 그 순서가 일정하지는 않았다. 예컨대 ‘병’자로 시작되는 한자어를 보면


과 같이 되어 있다. 국문과 한자(한문)를 대조시켜 놓은 이들 한자어들이 정확히 어떠한 뜻으로 쓰이었는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 널리 쓰이고 있었던 것을 뽑아서 하니 틀림없이 쓰이고 있었던 것들일 것이다. '경서, 경경, 경경, 경경' 등처럼 전통적으로 쓰여 오던 것도 있을 수 있고 '경문'과 같은 것이 바뀔 수도 있었으며, 또 '경석, 경정'처럼 새로 쓰이게 된 것도 있다. 『言文』에 등장하는 '内容'도 전통적으로는 '裏許, 內許, 裏許, 裏許' 등으로 쓰이던 것으로 여기서 새로이 실리게 된 예이다. 이 '内容'은 『한복자전』(1881)에서는 물론 볼 수 없었고 『國漢會話』 (1895, 내역: 國文字集)나 『한영자전』(1897)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등장한 '内容'은 『朝鮮語辭典』(1920)을 거쳐 현대 국어사전들에 계속 실려 내려 온 한자이다. 한편 『大韓民報』의 제2호～제136호까지 「新來成語(問答)」가 연재되었음을 앞에서 언급하였는데, 여기에 수록된 '新來成語' 139개는

이는 일본인을 가法令規則을起案호者들국人이 france로 때에適合한文字를究得지 못하고日本의俗語を仍用할所以라. 

라는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 일본어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139개 단어中 134개에 대하여 예컨대 '請負(日語우게오이) …'처럼 일본의俗語 받
음은 한글로 표시하였는데, 이 중에 `取締'와 `書留' 두 단어에 대해서는 각각 `西文語`와 `取締`라 덧붙이고 있다. 그리고 `議論(日言)론)`에 대해서는 `西文의 議論은 日本의 相談(소단)의 意義와 同一한니라`하여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139개의 단어중에서 `權利(겐리), 手當金(데마에김), 出張(출장)'} 등은 『言文』에 수록되어 있다. 새로운 차용한 단어들일 것이다.

이와 같이 『言文』의 한자어 정리는 국어의 語彙를 관찰하는 데에 요긴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데, 어휘사적인 면에서 통감부 시기, 확대하여 발현해 개화기와 격동의 시기에 속하기 때문에 지대한 의의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면에서 통감부 시기의 일본어 1910년대부터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어 `法語, 德語' 등이 일본어 `佛語, 獨語' 등으로 대체된 것처럼 일본어의 어휘가 상당량 차용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어 구체화도 관찰함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작업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자어가 우리의 것으로 인식되고 어느 한자어가 일본어의 그것인지지를 우선 구별할 수 있어야 할 터인데, 불행히도 이를 일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그것은 바로 평야말에서 언급한 `朝鮮語國語用字比較例'(1911)이다. 이는 일종의 餘語堆積 쌓으로 `人事・性行・身體・衣食・建築・器具・慶弔・交際・職業・經濟・地理・文書・時・雜'의 14부문으로 나뉘어 있다. 모두 372개의 한자어들인데, 표와 같은 방식으로 대조가 되어 있다(뒷면 표 참조). 이 표안 보아도 `食口'가 원래 우리말이요 `家族'은 원래 일본어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 『한복자전』, 『한영자전』, 『敎科書』, 『法制자전』(1901) 등은 물론이요 『言文』에도 없던 일본어 `家族'이 `말모이'와 일본 동경에서 간행된 『朝鮮語辞典』(H. Jones 1914)에도 실리지 않다가, 『朝鮮語辞典』(1920)에 실렸고 『羅韓字典』(1936) 이 외에 그의 현대 국어사전들에 계속 실렸던 것이다. 이는 곧 `家族'이 원래 일본어였으나 한국어에 정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7) 폐론 `積極的(西語 포시티브 日語 정극구애기), 消極的(西語 네가티브 日語 소교구애기), 相對的(西語 레브나티브 日語 소다이어게기), 絕對的(西語 암 솔뉴트 日語체스테게기)'처럼 서양어 발음을 한글로 적어놓기도 하였다. 이는 아마도 서양어를 일본어로 번역할 것일 듯하다.
<table>
<thead>
<tr>
<th>朝鮮語</th>
<th>國語</th>
<th>朝鮮語</th>
<th>國語</th>
</tr>
</thead>
<tbody>
<tr>
<td>食口</td>
<td>家族</td>
<td>內子, 內相, 室人</td>
<td>妻</td>
</tr>
<tr>
<td>一家, 一哥</td>
<td>親類</td>
<td>媽媽</td>
<td>朋友</td>
</tr>
<tr>
<td>三寸</td>
<td>叔父</td>
<td>丈母</td>
<td>學者</td>
</tr>
<tr>
<td>同氣</td>
<td>兄弟</td>
<td>先輩</td>
<td>嬰者</td>
</tr>
<tr>
<td>同生</td>
<td>弟</td>
<td>女卜</td>
<td>女, 盲人</td>
</tr>
<tr>
<td>四寸</td>
<td>從兄弟</td>
<td>白丁</td>
<td>纖多</td>
</tr>
<tr>
<td>內外, 兩主</td>
<td>夫婦</td>
<td>保人</td>
<td>保證人</td>
</tr>
<tr>
<td>男使</td>
<td>夫</td>
<td>一手</td>
<td>名人</td>
</tr>
</tbody>
</table>

개 한다. 이와 같이 『言文』은 '詞'와 '文'의 대조를 목표로 하였으나 다시 『朝鮮語國語用字比較例』를 통해서 어휘사 연구의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어휘사 연구에 있어서 시대적 의의가 클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방식에 따라서 『語文』의 한자어와 『朝鮮語國語用字比較例』를 비교하여 어휘사, 특히 우리말 한자어의 제어화와 일본어 한자어의 점두 사실을 확인하여 보려 하는데, 자연히 두 자료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한자어 믿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변형사기자는 알기 위해서 두 자료 이외에 통감부 시기의 앞선 자료로 『한불자전』, 『국한회화』, 『한영자전』을 참고하고 『朝鮮語辭典』(1920), 『朝鮮語辭典』(1938), 『 큰사전』(1947 ～1956)을 활용한다.

우선 『言文』에는 19,000여개의 한자어가 수록되어 있지만, 『朝鮮語國語用字比較例』에는 372개의 한자어밖에 없고, 그중에서도 양쪽에 공통적인 것은 300여개에 불과하다. 또 이 중에서 『한불자전』에서부터 『 큰사전』에 이르기까지 『朝鮮語國語用字比較例』의 일본어가 한 번도 표제어로 등장하지 않은 130여개를 빼면 160여개가 남는다. 그중에 80여개가 이미 우리말과 일본어에 다 쓰이고 있던 한자어라서 실제로는 일본어 한자어가 그 뒤 차용된 것은 70여개가 된다. 전체의 5분의 1 정도가 되는데, 저지 않은 일본어 한자어가 우리말에 들어온 샘이다. 사전표제학으로 옮긴다는 것은 이미 사회화된 형식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전체로 표제학시킨 것이기에 말하
자연 어문정리 특히 어휘정리를 끝냈다는 말이 된다.
그럼에도 이 70여개의 일어어 한자어가 어떤 사전에서 표제어로 각각 올리게 되었는가. 그러나 『言文』에는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그 이후에 표제어로 올린 것을 포함시켜 사전별로 보자(우리말/일본어)(*는 『言文』에는 실리지 않은 것들임).

<table>
<thead>
<tr>
<th>1. 食口/家族</th>
<th>2. *先輩/儒者</th>
<th>3. 是非/爭論</th>
</tr>
</thead>
<tbody>
<tr>
<td>7. 知覺/常識</td>
<td>8. 氣運/氣分</td>
<td>9. 妄語/妄言</td>
</tr>
<tr>
<td>10. 作亂/惡戦</td>
<td>11. 分揃/辨別</td>
<td>12. 誤諭/惡口</td>
</tr>
<tr>
<td>16. *穀屬, 穀食/穀物</td>
<td>17. 懸板/額</td>
<td>18. 剃髪/分針</td>
</tr>
<tr>
<td>22. *場/市場</td>
<td>23. 禦負商/行商</td>
<td>24. 物件/品物</td>
</tr>
<tr>
<td>25. 金貨/金貨</td>
<td>26. 銀錢/銀貨</td>
<td>27. 結錢, 稅納/租税</td>
</tr>
<tr>
<td>31. 防築/堤防</td>
<td>32. 山所/墓地</td>
<td>33. 下陸/上陸</td>
</tr>
<tr>
<td>34. 印朱/印肉</td>
<td>35. *文書, 文券, *文記/証券</td>
<td>36. 雜鬼/悪鬼</td>
</tr>
<tr>
<td>37. 雑技/賭博</td>
<td>38. 工夫/稽古(之力)</td>
<td>39. 眼界/眩望</td>
</tr>
<tr>
<td>40. 理致/理屈</td>
<td>41. 緣故/事故</td>
<td>42. *層所/故陣</td>
</tr>
<tr>
<td>43. 斟酌/推察</td>
<td>44. *地境/境遇</td>
<td>45. 沒疑/全部</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1. 保人/保証人</th>
<th>2. 出入/外出</th>
<th>3. 傳掌/引継</th>
</tr>
</thead>
<tbody>
<tr>
<td>4. 園束/取締</td>
<td>5. 求乞/托鉢</td>
<td>6. 級狀/連署(*出願)</td>
</tr>
<tr>
<td>7. 吐設/自白</td>
<td>8. 客說, 客談, 客言/贊言</td>
<td>9. 發明/辨解</td>
</tr>
<tr>
<td>16. 假家/露店</td>
<td>17. 層臺, 層層臺/階段</td>
<td>18. 家役, 役事/音請</td>
</tr>
<tr>
<td>22. 遼甲/曆曆</td>
<td>23. 極面/面識</td>
<td>24. 派迎/奉迎</td>
</tr>
<tr>
<td>25. 作人/小作人</td>
<td>26. 兵丁/兵士</td>
<td>27. 散滿/小販</td>
</tr>
<tr>
<td>28. 郵中/組合</td>
<td>29. 直錢/現金</td>
<td>30. *本邊/元利</td>
</tr>
</tbody>
</table>
앞의 사전에 일단 표제어로 올려진 것은 다음 사전에 그 대부분이 실리게 되어 계속 사용어가 늘어난 셈이다. 이상의 자료를 통해서 보면 조선시대로부터 전통적인 한자를 많이 물려받았으므로도 얼마간 많은 일본어의 한자어들이 우리말에 침투해 왔는지 쉽게 알 수가 있다. 조선어학회의『큰사전』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로써『言文』이『語彙史」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데,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사이의 통감부 시기와 이러한 차용의 본수령이 된다면『言文』은 더욱더 시대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편을 중심으로 한 한자어들은 당시에 널리 쓰이고 있던 것들을 저촉할 적인 것 이외에 새로운 우리말에서 쓰이게 된 것도 부분적으로는 포함되어 있고 하편에서는 한국어로 송윤자리의 한글 자료는 대체로 김선용 자신이 『新訂國文』 (1905)에서 보인 문자와 표기법에 따라 표기되었으나 ‘’’와 같은 新制文字는 사용하지 않았다.

표기상으로는 『言文』이 김선용의 저작중에서 과도기에 속하는 것이었다. 표기와 교육상에서 늘 강조해 왔던 것은 고저·장단의 표시였는데, 『言文』에서도 이를 철저히 지키려 하였다.

統監府 周期가 조선 시대와 일제강점기의 중간 시기로 우리나라가 언어 상에서도 큰 분수령이 되는 시기여서 『言文』의 한자어들은 변화 단계를 알아보는 데에 기점이 될 수 있는 자료이다. 『言文』과 『朝鮮語國語用字比較例』(1911)를 비교하여 그 전후 사전들을 통하여 검토한 결과, 일제강점기를 거친면서 많은 일본어의 한자어가 차용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따라서 『言文』은 語彙史研究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면서 높은 시대적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절차: 서울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참고문헌

高永根 編(1985), 國語學研究史, 學研社.
金敏洙(1963), 新定國文에 관한 研究, 아세아연구 5-1.
김형철(1997), 개화기 국어연구, 경남대학교 출판부.
박병채(1980), 『言文』에 관한 研究一聲調를 中心으로, 民族文化研究(高麗大) 15.
慎鎬廬(1985), 池錫永全集 解題, 池錫永全集(韓國學文獻研究所, 亞細亞文化社).
신유식(1993), 池錫永의 國文研究, 語文論叢(清州大) 8・9.
俞東濬(1987), 俞吉濬傳, 一潮閣.
李光鵬(1976), 姜琬의 人物과 思想, 東方學志(延世大) 17.
李基文(1970), 開化期의 國文研究, 一潮閣.
李基文 (1972), 國語音韻史研究, 서울大 韓國文化研究所.
李基文 (1977), 19世紀末의 國文論에 대하여, 朴晟義博士回甲記念論叢.
李基文 (1984), 開化期의 國文 使用에 관한 研究, 韓國文化(서울대) 5.
李秉根 (1977), 最初의 韓國語解『말포이』(稿本), 언어 2-1.
李秉根 (1986), 國語解典編纂의 歷史, 국어생활(국어연구소) 7.
李秉根 (1986), 開化期의 語文政策과 表記法問題, 國어생활(국어연구소) 4.
李秉根 (1992), 近代國語 時期의 語彙整理와 辭典的 展開, 震檀學報 74.
朱昇澤 (1991), 姜瑋의 著述과『古歡堂集』의 史料의 가치, 奎章閣(서울대) 14.
崔 浚 (1990), 新補版 韓國新聞社, 一潮閣.